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전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헌 편집국장: 조순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충성스러운 언덕의 충성스러운 이들에게!

성지순례 1차 출발

총현교회가 어느덧 47년이라는 반세기에 가까운 나이를 먹었다. 이 세월동안 교회는 '충성스러운 언덕'이라는 의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해왔다.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추구하고 있는 5대 목표는 분명히 총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 신령한 예배를 위해 교회는 언제나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 지금도 우리는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선 예배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뜨거운 감격을 누리며 선행하고 봉헌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한다. 또한 우리는 전국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350여명에게 2억 6천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제2교육관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일꾼으로 양성하고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주시고 복음의 삶으로 헌신하게 하신다. 세계선교를 위해 올해

도 총현에 속한 153명의 젊은이들이 14개 나라에 파송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다. 주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리고 민족 복음화!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에도 총현의 신실한 이들은 농어촌으로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쁨으로 전하였다. 이웃 사랑!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해 복지관을 건립 사용하였고, 앞으로도 기거이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할 것이다. 그리고 총현기도원을 새롭게 단장함으로 총현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총현동산도 가족들의 믿음의 교제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달달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확신하며 앞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 왔고, 지금도 기도한다. 그래서 이 목표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총

현의 눈물과 땀, 분명한 부르심이고 생명이이다.

지금까지 총현교회가 추구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지속되어야 할 5대 목표를 기대하며 지난 9월11일에 총현의 장로들로 구성된 1차 성지순례팀이 출발했다. 이번 성지순례는 총현교회 5대 목표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장로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 위한 훈련과 헌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그동안 교회는 여러 차례 장로들에 의해 금요집회에 주재 발표를 하는 등, 지도자들이 먼저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들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동감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일꾼들로 헌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기로 했다. 이번에 출발한 제1차 팀은 모두 36명(부부동반으로 30명, 단독으로 6명)으로 10박11일의 여정을 시작했다. 9월25일(월)에는 제2차 팀으로 39명(부부동반 38명, 단독 1명)이 출발할 예정이다. 이번 성지순례를 위해서 이들은 2개월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대한 말씀연구와 기도로 준비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도교회를 위해 앞장 세워진 이들이 더욱더 총현의 5대 목표를 성취하는데 헌신되어주시기를 기도하자.

청지기 세미나

10월 11일-13일 매일 저녁, 본당에서

'주의 일에 동참케 하소서'

교육훈련연구원에서는 총현교회의 모든 제직과 일꾼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청지기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세미나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제직과 일꾼을 위해서 저녁시간에만 실시하고, 교역자들을 위해서는 오전에 토론시간

을 마련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에 마련되는 청지기 세미나에 총현의 모든 제직과 일꾼들은 은혜받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하여 개인 스케줄을 점검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란 다.

제1회 총현교회 전국 학생 찬양대회

전국 교회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독창대회

10월3(화), 6(금), 13(일) 3일에 걸쳐서

찬양위원회에서는 성악의 탠트르를 가지고 있는 전국 교회의 젊은 찬양사역자들로 하여금 찬송의 능력과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위해 독창대회를 개최한다. 특별히 이번 찬양대회는 찬양뿐 아니라 성경고사 포함되어서 영적인 수준도 함께 측정할 예정이며, 성직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하기로 했다. 총현의 고등, 대학부 젊은이들도 이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 며, 총현의 성도들께서는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① 참가신청

신청서 교부 - 9월30일까지

신청서 접수 - 9월30일까지

신청서 서 - 참가신청서, 담임교역자 추천서, 세례증명서, 재학증서(또는 학생증)서

② 참가비

고등부 1인당 1만원, 대학부 1인당 2만원 (총학생 교인 30명 미만의 교회 교역자 지내는 무료)

③ 문의처

총현교회 찬양위원회(01-552-8200~0259,260)

일 자 시 간 비 고 감 사

10월 11일(수)	오후 7:00-9:30	수요2부예배대치	위트머 교수
10월 12일(목)	오후 7:00-9:30	전체	위트머 교수
10월 13일(금)	오후 7:00-9:30	금요집회대치	위트머 교수

제1교육위원회 신하 부서 교사훈련(2차)

오늘부터 시작

오늘부터 제1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의 교사훈련이 시작된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영성의 강화와 교사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제1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교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할 것이며, 해당되지 않는 교사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구 분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등 1,2,3부
9월17일	강사	김동하 목사	정갑신 목사
	주관 부서	유치부	유년부
10월15일	강사	서광진 목사	김동하 목사
	주관 부서	영아부	초등부
훈 련 시 간	12:30-13:40	12:30-13:40	11:20-12:20
훈 련 장 소	선교관 103호	교육관 414호	교육관 514호

독양 결심

“건고케 하시리라!”

노 경 복 (목사, 17교구 지도)

몇 천 강한 마음을 물고 대풍이 지나갔다. 가로수가 부러지고, 뒤흔고, 간판이 날아가고, 자동차까지 뒤집히는 강한 비바람이었다. 거센 바람이 지난간 다음날이었다. 기도원사역을 위해 올라가는 길에 화단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꽃을 보았다. 간밤에 거센 비바람에도 꽃잎과 꽃줄을 향해 푸르름을 더해주고 있었다. 자동차까지 뒤집히는 거센 비바람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강한 비바람에도 자신을 건널 수 있도록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 고난과 역경이라는 비바람 가운데 얼마나 신앙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담하여 실족할까봐 열려가 되셨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무너지고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믿고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마7:25).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은 오직 예

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마7:24).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총현교회가 설립 47주년을 맞았다. 비바람 가운데서도 요동함없이 지나왔다. 주만 바라보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반석을 돌리려 철저히 다지는 때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안에 서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총현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온전치서 있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거룩한 사역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나로 확장을 위하여 주의 말씀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 비바람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와 총현교회에 의하여 할 것이다.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타를 견고케 하시리라”(벧전5:10).

Hardest Words To Say

(Luke 15:18)

"I will set out and go back to my father and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for a human being is not physical feats or intellectual achievements, it is, admitting that you are wrong. The words "I'm sorry" or "I was wrong" are truly the hardest words in the whole wide world to verbalize. Christians are terrible at accepting rebuke and admitting to wrong! In today's Bible message, the prodigal son decides to acknowledge his personal responsibility for sin by confessing,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n your sight" (v. 18). Jesus tells us that heaven's response to this kind of admission is that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Lk. 15:10). Sadly, the most under used phrase in the church is "I was wrong".

The Bible is full of examples about the reluctance and unwillingness of God's people to confess their wrongdoing. King Saul was commanded by God to destroy everyone and everything of the Amalekites. This included the king and all his people (man, woman, child, and infant), ox, sheep, camels, and donkeys. Saul didn't carry out God's commands. He spared the king and the best of his animals. When confronted by God's prophet Samuel, as to why he didn't do as he was told, Saul responded, "for the people spared the best of the sheep and oxen, to sacrifice to the Lord your God; but the rest we have utterly destroyed" (1 Sam. 15:15). Saul didn't say he was wrong, instead, he used God for an excuse.

When David told Saul that he had two opportunities to kill him and didn't, Saul was temporarily remorseful, he wept. He knew David was one of God's loving children, and that his actions toward David were immoral, but he didn't apologize—he didn't say he was wrong. Listen to his speech to David. "You are more righteous than I; for you have dealt well with me, while I have dealt wickedly with you. You have declared

today that you have done good to me, that the Lord delivered me into your hand and yet you did not kill me. For if a man finds his enemy, will he let him go away safely? May the Lord therefore reward you with good in return for what you have done to me this day." (see 1 Sam. 24:16-22). In both cases, it was hard for Saul to say he was wrong. In the first instance, inadequacy prevented him from confession, in this second instance, his insecurity stopped him.

Another example is found in the story of David and Bathsheba. David killed Uriah, Bathsheba's husband, in order to take her for his wife. He went through tremendous turmoil over this incident, but didn't voluntarily say he was wrong. God's prophet, Nathan, used a parable to lead David to condemn his own actions and bring about repentance (see 2 Sam. 11 & 12). David didn't willingly concede until after he was directly confronted by God. In other words, his pride hindered his confession of wrongdoing.

In today's Bible verse, the prodigal son acts in self-will. No one points out his wrongdoing. He realizes his predicaments on his own, but only after he has no where else to turn. While in the depths of pig mush, hungry, and lonely, he finally grasps the consequences of his actions. His immaturity obstructed his confession. Although he appears a bit better than David, he's still far from good. In all three cases, there are sin. Saul's was willful, David's forceful, and the prodigal son's foolish.

Contrary to these three men is Daniel. Daniel wholeheartedly confessed and prayed, "Alas, O Lord,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and lovingkindness for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we have sinned, committed iniquity, acted wickedly and rebelled, even turning aside from Your commandments and ordinances." (see Dan. 9:3-19).

Overtly, Daniel's life appears to be uncompromising and faithful to God. The Bible tells us how he refused the non-kosher food offered to him by his Babylonian captors, and denied the king's orders to bow and pray to a statue—which got him thrown into a lion's den. His prayer openly confessed "I was wrong". The Bible doesn't mention anything negative about Daniel's character/nature, yet he prayed a sentimental prayer. He identified himself with the sin of his people, even though he had not sinned. He found it easy to say "I was wrong".

Saul was inadequate, David was proud, and the prodigal son was immature. Some people will admit wrong in the abstract, but never in the specific. Most people fall into this category. Usually, they admit they were wrong as long as the blame and shame fall on someone else. They make the other person(s) look like a fool. To do this is a curse. It causes problems for self and others. It impedes the development of spiritual grace. It renders one unable to deal with the problem in a biblical manner. It assures that one cannot be granted forgiveness. It makes it more difficult to deal with the sin. It hardens the heart against conviction, and makes one cold and indifferent. Moreover, it makes it very hard to truthfully say "I was wrong".

Now, if you have faith, you can look at this issue from a blessing viewpoint, and thus, gain a better perspective. First things first! Be sure your God is big enough! If God isn't Almighty and Awesome in your eyes, then you're not going to have a true outlook of yourself. In order to see yourself for who you really are, you need an all knowing, all powerful, and ever present God. You need to be honest, and pray to God to show you where you are wrong. Resolve to admit you are wrong where God shows it. The Holy Spirit will illuminate the things you need to understand. Approach your admission

of wrongdoing in a biblical manner. Sometimes, when you forget to say you were wrong, apologize. Every wrong requires forgiveness. You have to demand. "Please forgive me". The proper wording is, "I was wrong, will you forgive me? Amen!"

My dear Choong Hyun people, the hardest words in the whole wide world are "I was wrong".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id, "I was wrong, will you forgive me?", especially to the Lord? Yes, it is hard to say. But when you know Jesus Christ, when you understand God's grace, when you realize that He came here to earth to deliver you from sin, it's not so hard. If you really understand Jesus, then you really understand the cross, and you wholeheartedly know how much you are wrong. Examine your life, and see how often you neglect these hard words. Open your heart in prayer, "Lord, I was wrong, will you forgive me? You died for me. Your blood, only Your blood, washes-away my sin. You suffered for my sin. I say deep from my heart. I was wrong, please forgive me. Oh Lord, make me a new creature, Your child. I want to be reborn, from my natural position to Your spiritual position for me. I want to be able to easily say "I was wrong, will you forgive me" to You and to others. I look to Your cross, Your blood, Your suffering, Your sacrifice, You love, kindness, and endurance for my burden of sin. Please let me confess deep inside my heart, I was wrong Jesus Christ, will you forgive me, Amen!"

Grace abounds. Hear again the words of Jesus,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 (v. 10). Isn't that wonderful? Let's confess, "I am a sinner. I was wrong, will you forgive me?" We need this kind of statement in our church. Our church needs to easily say, "I was wrong, will you forgive me?" If you follow this way, the kingdom of God has a celebration going on right now! God bless you. 🙏



김성관 목사

어려운 고백

(눅15: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백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육체적인 업적이나 지식적인 위업의 달성이나, 잘못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미안합니다” 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실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난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 때문에 생기는 자존심). 오늘의 문화를 보면, 망명한 아들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18절)라고 고백함으로써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로 결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잘못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죄인이라 칭하옵니’(눅15:10)와 ‘천국을 잃을 기쁨이 되니라’(눅15:10)와 천국의 반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과도, 교회에서 가장 가치 없게 해석되는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구절입니다.

변명으로 대신하는 고백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고백할 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자못해서 하는 것에 대한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의 모든 자들과 모든 소유물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다. 이 명령은 왕과 모든 그의 백성들—남자, 여자, 어린이, 아이—왕자와 양, 낙타와 당나귀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다. 그는 아말렉 왕과 그가 가진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사울의 반응은 “백성이 당신의 나라에 효호와 계 세사하여 왔고 사울의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니”고 그의 의지는 우리가 진멸하였었다”(삼상15:15)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사울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다.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구실 삼아 변명하였습다.

감정의 동요로인 고백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가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사울은 일시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울었습다.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윗에게 저지른 행위가 이토록 두려웠음을 알았습다. 그러나 그는 사과하지 않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다. 그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너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배

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습다. 사람이 그 인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였느니라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삼상24:16-22을 보십시오). 이 두 경우 모두가 사울에게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다. 첫 번째 경우엔 그의 불만이 고백하지 못하게 하였고, 두 번째 경우에는 불안함이 고백을 가로막았습다.

왕이라는 자존심에 막힌 고백

다른 것은 다윗과 밋세바에게서 발견되 어집니다. 다윗은 밋세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습다. 그는 무서운 이 사건을 숨겨놓는 죄악의 소용돌이 속을 지나갔지만, 스스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가 그가 저지른 행동을 비난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다윗에게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였습다(삼하11장과 12장을 참조). 다윗은 그가 하나님에 의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직면한 것까지 자신에게 인정하지 않았습다. 달리 말하면, 그의 자존심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의 고백을 막아버렸습다.

성숙하지 못한 고백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망명한 아들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행동했습다. 그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다. 그는 자기 자신의 곤경에 빠진 것을 인식하였지만, 그가 돌아갈 때는 없었어 이후였습다. 때때로, 젊음, 그리고 고독함에 갇혀 있지 않은 동안, 그는 마침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다. 그의 미성숙함은 그의 고백을 가로막았습다. 비록 그가 다윗보다 조금 덜한 것같이 보이지만, 그는 여전히 선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다. 모든 세 가지 경우에 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고집을 부렸고, 다윗은 강제적이었고, 당자는 어리석음이었습다.

다니엘의 고백

이러한 세 사람과 대조되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마구잡이로 억압되고 기도하였습다. “크리스도 두려워한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인양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멸망조사함.”(단9:3-19을 참조). 명백하게, 다니엘의 생애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사와 타협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바벨론 포로시절에 고백해 제공된 음식—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거부하였고, 우상을 향하여 절교한 것들을 선포한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써 사

자굴에 던져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도에는 열렬한 고백이었습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나”. 성경은 다니엘의 성의가 본성에 대하여 어떤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성적인 기도를 하였습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서도, 그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저지른 것과 똑같이 아파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쉽게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에 대한 반응

사울은 부작절하였고, 다윗은 거만하였 으며, 당자는 성숙하지 못했습다. 어떤 사람은 잘못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결코 구체적이지 않았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반응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비난받고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것 치릴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일종의 자위입니다. 이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은 영적 은혜의 각성을 방해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태도로 문제를 다룰 수 없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용서를 빌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때때로 부끄러워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은 무죄 판결에 대해 마음을 강박하게 만듭니다. 망명하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그것은 진정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신에 대한 정직함

지금, 만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축복의 결과로부터 이러한 결말을 보게 될 것이며, 보다 분명한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제 일 처음에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얼마나 위대하신지 확실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전능함과 경이로이 사라진다면,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인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이제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필요하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못임을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이 결심을 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조명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적인 태도로 잘못된 행동을 하용한 것으로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사과합니다. 모든 잘못은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요정해야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적당한 말들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를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충헌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주님께 마지막으 말한 시간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습다. 그것은 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던 때에는 그런 말이 어렵지 않았습다.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이해하고, 그의 십자가를 이해하였면,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를 마음속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용서를 구하는 말들을 소홀히 여겼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사오니, 주의 보혈, 오직 당신의 피로써만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의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사오며,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오니,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소서. 육체의 다리를 용서해 버리고 나의 영혼이 거룩함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나로 하여금 당신과 다른 이들을 향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십자가와 흘린 피, 주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나의 무거운 죄를 위한 당신의 사랑과 친절, 인내를 바라보오니.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범죄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 공동체의 참된 고백

여러분들에게 왜 내가 너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다시 들이보십시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를 잃을 기쁨이 되느니라”(10절).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고백하는 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쉽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즉시로 축복하여 베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

당광까지



몽골땅에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임무친 장로님을 단장으로 한 총 17명의 대원들이 이종대 목사님 인도하에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사역을 펼쳤다.

목표는 울란바타르와 터우 아이막 지역에서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일대일, 또는 전도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 방법으로는 특별히 제작한 만화4영리를 1000부 준비하여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어린이들에게는 부자와 나사로 인형극을 몽골어로 준비해 한 찬양과 율동을 함께 나누었고, 아파트 주변과 지방의 마을에서는 풍선아트를 가지고 어린이들을 불러 모았다. 그래서 네 명의 인형극을 보여 주었는데, 본 교회 외선부에서 출석하는 몽골인 중 파주의 알담 자매 등 5명이 운영실에서 정성껏 녹음한 태이프를 가지고 아주 요긴하게 사역하였다.

전도집회를 하는 날에는 푸른 하늘아래 많은 사람들이 야외마당에 자리를 잡았고, 뒤에는 말과 마차 등 젊은 형제들이 병 둘러서서 선포를 들었다. 선포는 이종대 목사님과 통역자 보여 형제가 나란히 단에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시며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힘있게 선포하였다. 청중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다. 그때 내빈 한 남자가 단으로 나가더니 스피커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동시에 통역자의 원원 얼굴을 향해 오른손으로 주먹을 내렸고 바로 곁에 서서 말씀을 외치시던 목사님의 원원 얼굴까지도 그 주먹을 맞게 되었다. 순간 듣고 있던 아줌마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 때인 아저씨를 향해 그만 두라는 말을 했고, 맨 앞에 있던 한 남자가 그 손을 잡고 갔다. 순간 뒤편이 아주 선해졌지만 그것도 순간,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통역자도 금세 분위기를 안정시키고 나머지 말씀을 잘 전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보았다. 그들의 표정에서 감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때 목사님은 그 때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시면서 그 용서하시는 기도로 집회를 마무리했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집회 후에 임무친 장로님은 목사님을 끌어안고 제가 맞지 못한 것을 목사님께서 맞으셨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위로하셨고, 목사님도 부족한 종이 처음 나오는 단기선교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파란만장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 그 날 저녁 모든 대원들은 비록 말로는 다 표현을 못했지만 목사님과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남아 복음을 전할 몽골 형제자들을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했고 전진으로 복음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다.

다음으로 외선부의 몽골 가정 심방과 민박이 있었다. 미리 신청을 받은 민박집에 가서 1박2일간 두 번씩 민박을 했다. 가는 곳마다 사영리와 성경, 선물을 준비하여 복음을 나누었고 거의 모두가 복음을 영접하고 즐거운 고개를 나누었다. 이렇할 때는 봉고를 이용하거나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였는데 열에 일곱은 사람에게 에게 나누며 복음을 전하였다. 물론 고생도 했지만 선교훈련이기에 더욱 보람이 있는 고생이었다. 울란바타르에서는 철저히 현지 음식을 먹었다. 기름이 많은 음식과 육식이 주식이므로 우리기 소화하기에는 쉽지 않았지만 한 정도 불만없이 잘 소화했다.

우리나라의 것처럼 생긴 열매인 사마르타가 길에 넘었다. 한 집에 300 투그리아였다. 간단이라고 하는 라마 불교 사원근처에서 그것을 파는 사람에게 물건을 사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주님, 이 사마르 열매처럼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파낸 복음도 마다하지 않고 젊은 학생대원들과 함께 똑같이 노방전도 및 민박, 현지사역을 하시면서 뿌린 주님의 사랑,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전한 예수님의 복음의 열매가 이서 빨리 이 사마르 열매처럼 주렁주렁 열려서 몽골 어느 곳에나 십자가의 복음이 매를 뿌리게 하소서. (민병용 전도사)

'충현 전도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충현 전도대의 운영 목적

교회의 5대목표 중 '민족 복음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위하여 이번 가을 학기에 제4차 충현 전도대를 모집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와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강, 그리고 현장 전도실습을 병행하여 실천적인 전도대원을 양성하며, 훈련받은 전도대원들을 전도현장에 보내어 가까이 있는 이웃과 이 민족을 복음화 하고자 하는 계획하에서 '충현 전도대'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2. 교육 안내

교육기간은 8주간(9월 20일~11월 8일)에 걸친 전도에 대한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 대상은 등록 교인 중 교구교역자의 추천을 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장소와 시간은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수요일 오후 1:40에서 4:30 까지 전도위원회 지도 목사를 강사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면, 전도의 의의(1주차), 전도의 내용(2주차), 결신의 의와 내용(3주차), 전도의 구체적 방법(4주차), 전도실습(5,6주차), 전도의 실제적 문제(6주차) 등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 전도 우리의 사명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앞으로 충현 전도대에 모인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적극 참여하셔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동역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민 목사)

사랑하는 충현의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저는 동아건설 직원으로 리비아 대수로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 리비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는 이곳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삼국인 선교리비아에 있는 제 식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의 사명을 '동아 뱀까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 뱀까지 교회'는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 형제들에게는 그동안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었으나 이제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여 방글라 예배를 시작하였으며 무슬림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3명의 집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과 백을 하였습니니다. 12월에 형제와 부모와 아내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실을 알리고 부모와 형제는 물론 아내가 예수 믿는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딸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주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다른 동료들이 자기 가족에게 알리지 되던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될 수가 있으니 자기가 휴가 가서 이야기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녀온 후에는 적극적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 뱀까지 교회'는 삼국인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들을 잘 양육하여 신실하고 소명있는 형제들에게 특별히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곳 현장에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할 일꾼들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 중국의 선교에 뜻을 두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현저한 진보를 위하여 좋은 준비가되기 되길 갈망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고 동아건설이 정상화되고 리비아에서 계속 공사를 수주하여야 이러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으니 이것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월27일 동아 뱀까지 교회에서 이병석 집사 올림

16교구에 봉기교회에서 온 편지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유난히 뜨거운 날씨에 계절 앞에 피리를 내리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초가을의 선선함을 느끼니다. 요즘 들은 들뜬도 잘 잔다며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 숙여가고 있습니다. 2박3일동안 복음의 오지와 같은 곳에 오셔서 참으로 마음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천주교의 16교구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수고로 전하보다 더 귀한 두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강가마루에서 한사람, 부흥1리에서 한사람이 나왔음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수 마친 후에 복 나오기를 약속한 사람이 4명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불평불만이나 주님 반역하서 제대로 함조하지 못한 점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도록 믿 쓰겠습니다. 모쪼록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이 전해지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믿어 믿어 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봉기교회 권석보 목사 올림

그림성경공부의 즐거움

우리가 하나되게 하신 이유

이 은석 (청년1부, 74동기)



△왼쪽에서 세번째가 이은석 지매

준비한 간식을 먹으며, 일주일 생활들을 나누며 아픔과 기쁨들이 있으면 정말 솔직히 나누는 우리 조이기에 나눔이 더욱 풍성합니다.

나눔 후 예배소사를 공부하며 마음이 예배소사를 통하여 무엇을 전하는지와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배우며 그 안에서 적용을 통해 또 한번 자신을 뒤돌아 보는 시간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주간에 정말 필요하고 긴급한 기도제목들을 나눕니다. 나는 서로에 대해 깊이 아는 시간이기때 이시간이 제일로 좋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유영자매와 직장문제를 하나님을 의뢰하며 일주일을 살겠다는 은미, 일주일동안 작살 수 있도록 나는 흥배 형제, 직장으로 고민하는 나, 우리 조 기도 나눔은 서로의 손을 잡고 시작하며, 간단히 서로에 대해 기도하고 마침으로 GBS는 끝나지만, 한 주간에 우리조원들이 각자의 생활속에서 서로에 대해 기억하며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제목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에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쯤 조개편 후 열성히 있지만 그래도 생각만 해도 보고 싶은 우리 조원들, 이제는 새로 바뀐 조에 각자가 더 열심히 섬기고 있을 우리 조원들로 인해 하나됨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되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만평

글·그림 / 장민(minj74@jaangminn.com)



새내기 조장의 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미 안 (청년1부, 75동기)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2:22).

요즘 청년부는 예배소사를 공부하고 있다. GBS교재의 맨 앞장인 예배소서 2:22 말씀인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란 제목이 붙여져 있다. 요즘 교재를 펼쳐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록게 다가온다. 올해 후반기부터 새로 청년부 조장을 맡게 되었다. 대학부에서도 조장을 했었지만 그때와는 사뭇 다른 생각들과 결심들이 생기는 것은 공동체를 바라보는 나의 새로운 마

음때문인 아닐까 싶다. 얼마 전까지 난 이런 생각을 했다. 나 자신 하나님께 바로 시고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생활을 잘하고, 남들 하는 것처럼 교회봉사 잘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겼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상황을 가운대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었다. 교회, 청년1부, 우리조... 이러한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을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나를 다듬고, 성장시키실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한 기대함들이 생겼다. 이제 조장을 하게 되면 주일날 늦게까지 GBS공부도 해야 하고, 조원들을 위한 기도제목들이 늘게 되고, 매주마다 연락도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약간은 내 삶에서 더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을테지만, 조장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조원들을 변화시키시며, 이들을 통하여 청년1부 공동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가서 이 교회와 청년부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해 본다.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꿈꾸며, 새로운 조장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싶다.

묵은 땅을 갈고

정 정 자(청년1부, 73동기)



4년전 나에게 목요양육훈련원(DTC)이라는 소중한 시간이 생겼다. 처음에는 큰 기대감도 없었고 극심한 부담감만 있었다. 그러나 24년간의 신앙생활을 접고 유아적인 모습의 나를 발견함을 시작으로 구원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참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수많은 내 속의 질문들 중에서 난 하나님과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도 몰랐고 확신도 없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곳을 넘나들며 신앙의 경력을 무의적으로 나의 자랑으로 여겼고, 무수히 쌓여온 가는 지식들 그 지식들이 마치 내 삶인양 자만했던 모습. 그래서 내 안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그런 나에게 참 가치를 발견하는 기회였다. 어둠이 짙은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는 발걸음은 무거워진 잠시후 돌아갈 때에는 늘 새로운 힘이 생겼고 말씀의 풍성함과 지체들과의 교제로 일주일의 삶을 지속시켰다. 차츰 내 삶의 목표도 분명해졌고, 나의 성품을 돌아보게 하였다. 지금도 나는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새로운 나를 발견을 만난다. 물론 내가 확신하며 가고 있는 그 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데 이젠 디자인 잘 길들여진 오랜 신앙인만으로 삼면서 확신과 기쁨이 소멸된 무의미한 날들 속의 고민은 하지 않기를 원한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내 자신과 싸우지만, 그시간이 하나님을 목상함이 가장 귀한 시간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안정되어지는 내 심령,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싶은 소망함이 있는 것을 볼 때 나의 길에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감사한다.

구역탐방에 앞서 잠시 모이기를 폐하자고?

2000년을 돌아서며 원간잡지 <소금과 빛>에서 현대교회 구역예배의 잘못된 실상을 지적했다. 지적된 실상이란 여러가지 이유로 구역예배를 잠시 폐하는 내용이다. 한국교회의 자람이던 새벽기도를 폐하는 교회가 늘고 있다. 금요기도회 역시 많은 교회에서 폐해지고 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날씨가 추운 한겨울과 더운 한여름에는 구역예배를 폐하는 것이 당연한 교회문화로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역예배를 폐하는 교회들도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다. 한여름 쥘뽀뽀 속에서 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더워도 구역예배를 드림엔 서로 은혜가 안된다는 것이다. 사설 표현을 안해 그렇지 구역예배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음식 강만 하라. 그시간에 가족들 시간 조정에 놓으라. 잠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폐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인 부담을 들고 나와 하소연할 때는 그럴 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 주장들이 모순 덩어리라는 누구나 알고 있다. 주장은 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타난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늘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가! 성경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현대 교회를 충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헌교회를 돌아보자. 중헌교회는 새벽기도도 쉬지 않고 있다. '금요 집회' 역시 참석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인지 알 것이다. 구역예배는 어떻게 해서 '구역탐방'이라는 이름으로 <주간총헌> 기자가 구역예배를 참례해 은혜를 나누고자 광고했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역탐방 오기를 희망하는 구역이 끊어지지 않게 될 수 없다. 다른 교회는 못하는 데 우리교회만 잘한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구역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구역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모임을지를 환기시키자는 것이다.

조여름 김성관 목사님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전하며 오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2:46) 말씀으로 설교하신 기억이 난다. 모두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예배가 활발한 줄로 안다. 끝으로 앞으로 진행될 구역탐방의 구역예배가 부득이함이 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되기를 바란다. '구역탐방' 이 큰 은혜가 되기를 기도한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라"(벧전 5:2). (권오섭 기자)

복음을 전할 작은 기회

이경재 (집사, 3교구)

거래저 건설회사에 46세인 여성대리가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분은 시부모님이 불교인이라 자신은 교회에 올 수 없고 아들만이라도 교회에 보내줬다고 약속을 했었다.

임상적인 전화통화만 가끔 있던 중 그분은 그 건설회사가 도산하여 실직, 겨우 우여곡절 끝에 서울의 조그마한 건설회사의 평사원으로 옮긴다고 되었다. 그분을 다시 만나 일을 보고 자 한잔을 대접받은 나는 그분의 생활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시아버지는 단 담석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시고 남편은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거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 얼마전 교통사고까지 당하여 2주째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했다. 시아버님은 시어머니 병원에서 한발자욱도 거동을 안해서 아들을 통하여 시아버님 식사를 나르한다. 거기다가 생활비가 적다는 평상시의 시어머니 말씀과 이혼하게끔 전제되어 일상이 이제는 막다른 골목까지 온 모양이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더 힘들게 하는가?" 등 다시 한번 믿음생활을 할 것을 권유하며 오랜만에 그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러 어렸을 때 교회생활한 것들을 꺼내어 놓다. 그리고 시부모님 몰래라도 믿음생활을 하고 싶다고...

나편과의 원만한 관계와 시부모님과 며느리로서의 본연의 자리를 찾아 가도록 이야기 하려다보니 고동부 수련회에 조금 늦었지만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영훈을 불쌍히 여기시기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여 주시나...

나는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물어다. "당신은 이제 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만나면 법에 호소하시죠?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억울함이 있을때 어디에 호소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 해보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분께 이야기 해보세요." 라고...

나혼자 천국같은 삶입니다

최봉순 권사님의 전도이야기



잘 결혼한 26세 새색시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 47년을 맞이한 것처럼 교회에 나온 해수가 같습니 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 이었던 지금은 장성하여 이엿하게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둘째아들들을 통하여 불려주시 기격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일을 말하자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뒤로 나는 성경에서 인간을 불쌍히 보게 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언제 이디나 전도하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성이 친히 말씀하시므로 듣는 모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전도한 이야기 등 이전의 짧은 경험담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1999년 한해 동안의 회를 돌아보아 보려고 합니다. 연초에 10명을 전도해왔다고 결심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다녔지만, 막상 열매 맺은 등록교인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로 연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전주일이자 권사온주일이 있던 날이었습니 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한 주에 3편씩 정기적으로 전화하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나옴이 된 것입니다. 그해 전화하던 내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족이 다 나가도 되고나고 몸으며 이왕 나가려면 가족이 다 함께 나가도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애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몇 달 이기에서 우리 교회에 탁아부설이 있어서 애베드리는 동안 권사님을 검사받아서 너무 잘 돌아 주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니까 그분의 부인이 더 기뻐하며 교회에 나왔습니 다.

애배를 드리고 나서 첫날부터 등록하라면 부담스러워할까하여 따뜻한 차나 한 잔 하고 가라고 새신자등록실로 안내했습니다. 뜻밖에도 등록카드를 신청하 발아 기록하였고 또 새신자교육을 받으라고 하니 "빈으

려한 잘 배워야죠" 하며 교육에 일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부인이 "시아버님께서는 일주일 한두번씩 절에 가서 불공드리는데..."라고 하자, "장모님은 3번씩 가지요"라고 화하게 웃으며 응수하는 것이었다.

그날 온회식 기쁨으로 사위한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하면서, "여보게, 나 지금 출주고 싶네." "온회하시는데 뭐가 그리 기쁘세요?" "말씀이, 오늘 3명을 전도했거든, 자기도 한 번 보게, 자네 아들 낳았을 때 무

척 기뻐했지?" "그럼요." "그거보다 몇배나 기쁘네다."

그동안 기도조나 병원, 어려운 이웃 할것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주께 위해 전도지와 사랑, 겸 등을 삼바하고 다니며 귀담없이 다녔더니, 하루는 넘쳐서 다리를 쥘질러서 사무나랑에 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정말 할 일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72세가 된 이 나이에도 젊은 서너 시간 자면서 일해도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했더니 무슨일을 하시는데 그리 바쁘냐고 물었다. "먹는 것도 혼자 먹으려면 권리가네 어떻게 친구를 혼자 갈 수 있겠소?" 하며 복음을 전하러 귀가 쫓겨하여 들는 것이었다.

(권리/김석진 기자)

내 입의 찬송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김석진 (집사, 12교구)

찬송할 때 나는 물속을 유영하는 물고기처럼 자유함을 느낀다. 어느 곡을 가릴것없이 부를 때 가슴에 충만함이 넘쳐 올라 찬상의 공기를 마시게 되면서 청량함을 느낀다. 힘들고 지칠 때 또 찬송가를 퍼서 소리내어 부를수가 하면 유송하기도 한다. 어느것 세 힘이 솟고 아픈 마음이 깨끗이 치유되는 것을 느낀다. 한때는 모자르는데, 하이들은 또 마초를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찬송가만이 내 귀에 들린다. 그전에 그렇게 좋기만 하던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모비우스도 이제는 그저 그런 감흥이 인다.

이젠 신앙의 대진배들에서 오랜 세월 전에 지은 이 찬송가들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빛의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는 또하나의 산업혁명 시대에 사는 금세기대에 사는 우리가, 이것도 감동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 불라도 불라도 좋기만 하다. 오래도록 많이 불라도 절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이상하기만 하다.

한 곡을 부르고 나면 또 다른 곡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곁에 계심을 알 수 있어 또 감사하다.

호흡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시편 150:6).

내가 시편을 처음 읽고 놀란 것을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하고 몹시 의아해 했다. 물론 그때는 지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의 일이다. 이제 찬송하는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매순간 찬송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작은음악회'를 하고 나서

윤혜진 (중등2부)



관현악 합주로 시작되서 합창, 클라리넷 독주, 뮤지컬 등으로 이루어진 이번 '작은음악회'는 가장 아름다웠던 음악회가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있을까. 세상 속에서 찬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우리에게 이런 음악회를 통한 찬양의 기회가 있을은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

정성껏,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던 손, 몸짓 그리고

입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느껴졌는지. 꼭 하나님의 가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재확인 하고 느끼기에 또 크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도 충분했다. 두달 남짓한 연습기간동안 정말 힘들었다. 시간을 겨우 겨우 모아가며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고, 계획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나려고 한 적도 많았지만, 우리가 힘들게 노력한 만큼의 보람은 있었다고 본다.

비록, 음악 자체는 완벽하게 잘했다고 볼 수 없었지만, 사람의 눈에만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중심을 보이는 찬양을 받으셨으리라 믿는다. 찬양을 하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만큼, 들린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이 음악회를 위해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이 '작은음악회'를 통해 은혜받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의 도우심

박주영(중등3부)

8월4일 토요일, 아버지와 할머니의 휴가로 우리 가족은 어디로 여행을 갈까 고민할 때 동해안의 경포대를 하룻밤에 가기로 결정하였다. 왜냐하면 다음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오전12시 음식과 수영복을 챙기고 드디어 출발하였다. 우리 가족은 최대한 빨리 가려고 고속도로에서 쉬지 않고 계속 전력질주 한 끝에 드디어 6시간만인 오후6시에 경포대에 이르렀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람은 아직 많이 있었다. 빨리 수영복을 갈아입은 뒤 나와 누나는 해수욕을 즐겼다. 약1시간이 지난 7시, 주일인 내일을 위해 누나와 나는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란 놀고 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7시30분쯤 주일인 내일을 위한 절주는 시작되었다.

새벽1시를 조금 넘은 새벽1시30분, 앞의 4중 추돌 차들 때문에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 차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 곳 고속도로는 2차선이었다. 사고는 어느 이성을 잃은 차로 인해 벌어졌다. 그 차는 2열로 나누어 서있던 차 사이로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지 갑자기 사이로 들어와 양쪽에 있던 차들을 마구 박고 우리 쪽으로 왔다.

그 때까지도 우리 가족은 반대 차선에서 사고가 일어난 줄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순간 무의식적으로 차를 앞쪽으로 조금 빼왔을 때 사고 차량은 우리 차에서 약15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다. 순간 우리 가족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릴 도와주셨음을 믿고 기도 드렸다. 주일을 지키기 위한 우리 가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생각하셨는지 우리 가족에게 피해가 없게 하셨다. 그리고 그날 우리 가족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동해안을 다녀왔고, 주일 또한 지킬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에게 사고를 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되고 있다.

만약 우리 가족이 그때 사고를 당했다면 저만큼 병원 신세를 지고, 주일도 못 지켰을 것이다. 앞의 일처럼 주님은 안전일을 기록히 지키는 자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알 수 있었다. '주일 성수'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건반질과 담대함의 차이점

이유경 (중등3부)



영아부에서 봉사하시는 어머니 덕분에, 저는 비교적 많은 피아노를 칠할 기회를 얻곤 합니다. 그 중에는 울보도 있고, 장난꾸러기 아이들도 있고, 그밖에 수줍음이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전 그 모든 아이들에서부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그림자나 울음도 많은 아이들이더라도, 부모님이 곁에 계시면 한 마디로 '집을 상실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니다. 덕분에 전 애틋한데 상당히 귀여운(?) 장난감 신세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뭐, 아이들이랑 놀아주다 보면 친진난민함을 느낄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힘이아 자기들과는 상대가 안되지만, 그런 걸 알면서도 소아들이 형을 북돋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강철팔뚝을 소유한 아빠와 싱그러운 웃음을 잔직한 엄마를 굳게 믿음으로써 나오는 행동이었지요.

종종 살아가면서 제법 심한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듯한 일인데, 막상 부딪쳐보면 아무것도 하지못한채 허우적 거리는 내 자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부모님께 효도도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반질과 담대함은 종이 한장 차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건반질 내성적이더군요. 모든일을 잘해 낼 수 있을거란 확신이 내 자신에게 있었습니니다. 내 자신의 힘을 믿었고,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니다.

이제 전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내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꼬마들처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저도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이니



준비된 신부처럼

연못 스치거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불렀다.

내가 날마다 출근하는 여의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뱃사람들이 한창일 때는 뱃사를 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윤종도에 줄을 지어 장사진을 이루고, 여름엔 수영장에 거울엔 스케이트 타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된다. 무엇보다 많이 보게 되는 사람들은 테드모터 오는 인파들인데 마치 신문의 사회면을 볼 듯보기도 들여다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관심있게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잠시 외출했다가 인도네시아인으로 보이는 자매 세명을 보았다. 그들은 공중전화와 막스 안에서 각자 열심히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옆에 있는 전보대에 기대어 기다리는데 그 중 한 자매가 먼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평평 울기 시작했다. 순간 당황한 나는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내일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예배드러 교회에 간 나는 기도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있는 그 자매의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보고 싶은 사람들로 인한 그 고민인지, 한국 땅에서의 힘겨운 사려움이 그 눈물의 이유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울고 있던 그 슬픈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매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혹시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세상 속의 공교롭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건널 수 없이 마음이 아파 왔다.

나는 다음날 부랴부랴 점심시간 그 즈음에 공중전화와 막스에 나가 보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자매들을 다시는 여의도에서 보지 못했다. 지금도 가끔 그 자매들 생각에 후회를 한다. 그 때 다가가서 통이라도 한 번 두들겨 주며 지혜롭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그 가운데 주님을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 이후로 난 한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마치 준비된 신부만이 신랑을 맞이함과 같이 복음이 필요한 영혼이 언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매일 얻든 못 얻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지현 기자)

